

# 박물관사람들

2021년 가을 · 74호

Friends of National Museum of Korea





세계도자실 크랙자기



발행일 2021년 9월 1일 발행처 국립중앙박물관회 |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전화 (02)2077-9790~3  
 기획 이재범 편집위원 강현자·길문숙·문정원·서유미·정은경 진행 김유정 디자인 동방문화 (02)2275-1913, 1924  
 전자우편 gomuseum@hanmail.net 홈페이지 www.fnmk.org

회지에 글을 싣고 싶은 회원은 박물관회 사무실로 원고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물관사람들

Friends of National Museum of Korea

## 2021년 가을 · 74호 Contents

기획 / 세계도자실	도자기 꽃, 향기가 흔들리다	4
	우아하고 섬세한 도자기 인형	8
	유럽이 열광한 청화백자	12
문화칼럼	송 휘종과 청명상하도, 그리고 선화시대	16
회원마당	카르마 Karma	21
답사기	까치와 토끼가 가는 길	24
회원마당	바다가 시켜준 세상구경	28
박물관 소식	2021 국립중앙박물관 전시 계획	32
숨은전시	신석기시대의 직녀는	33
국립중앙박물관회는	기부회원 명단	



도자기 꽃,  
향기가  
흔들린다

여인의 쟁반 위에는 물 한 컵과 찻잔이 놓여 있다. 찻잔에 초콜릿 음료 담음새가 좀 색다르다. 은 접시에 붙은 유리 받침 안에 앉은 찻잔은 불편한 옷을 걸친 것 같지만 초콜릿은 비교적 안전해 보인다. 18세기 귀부인들은 귀족의 전유물인 초콜릿 차를 잠자리에 들기 전 마이센 도자기에 담아 마셨나 보다. 일본의 가키에몬 양식을 모방한 꽃무늬가 돋보인다.

르네상스 시대까지 유럽은 유리잔이나 주석 접시를 사용하였고 음식을 손으로 먹는 문화였다. 17·18세기 유럽 상류층은 바닷길을 통해 들어온 참신한 중국물품을 수집하고 모방하려는 ‘시누아즈리’는 물론 명·청 교체기의 빈틈을 침투한 일본 가키에몬 양식의 섬세한 도자기와도 사랑에 빠졌다. 도자기가 유럽인 정체성의 한 부분을 차지하면서 도자기를 점유하려는 그들의 의지는 더욱 높아졌다.

당시 유럽은 크고 작은 나라로 분열된 약육강식의 시대였다. 폴란드 지배권을 놓고 스웨덴 카를 12세의 위협을 받던 작센의 선제후 아우구스투스 2세는 군자금 마련에 고심하였다. 그는 엘베 강변 마이센의 실험실에 연금술사 뵘트거를 가두고 금의 가치를 가진 자기 제작에 전력하였다. 아우구스투스 2세는 부와 권력의 상징인 청화백자를 얻기 위해 기마병 600명을 내어줄 정도로 자기에 집착이 강했다. 감금된 뵘트거는 삼만 번 이상의 실험을 통해 고흐르도(카울린)의 필요성을 깨달았고 카울린 광산을 발견, 2년간 실험을 거듭해 맑고 경쾌한 경질자기를 굽는 데 성공한다. 아우구스투스 2세는 마이센에 로열 작센 자기 제작소를 세우고 드디어 유럽에 ‘자기의 시대’를 열었다. 1722년에는 마이센 자기를 차별화하기 위해 작센을 상징하는 푸른 쌍검을 그려 넣어 최초로 상표권 개념을 도입했다.



장 에티엔 리오타르, <초콜릿 잔을 든 소녀> 부분, 드레스덴 국립미술관

츠비벨무스터 패턴 접시, 프린세스호프 국립도자박물관

도자기를 통해 동서양이 교류했던 역동적인 역사의 장면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2022년 11월 13일 까지 국립중앙박물관 3층 세계도자실에서 열린다.

뵘트거 포셀린이라 명명한 순백색에 톨로 찍어 붙인 화려한 장식의 찻주전자와 잔 세트 앞에서 300년을 거슬러 오른다. 초기 마이센 양식은 유머러스한 중국풍 인물과 유럽 장식 무늬를 혼합하고 금장식을 더하거나, 일본 디자인 패턴을 모방한 채색자기였다. 국가기밀이었던 자기기술도 결국 외부로 유출되면서 마이센의 자기는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유럽 자기 생산의 초석이 되었다.

뵘트거 사후 마이센은 20년의 노력으로 코발트블루 청화백자의 재현에 성공한다. 여기에 로코코 양식 등의 유럽식 감성이 더해져 ‘마이센 스타일의 청화백자’가 탄생한다. 바로 양파 문양을 뜻하는 츠비벨무스터이다. 청화백자에서 풍요와 장수를 상징하는 석류와 복숭아를 양파꽃으로 잘못 인식한 이해의 오류와 대나무와 연꽃, 국화꽃이 어우러져 독특한 문양이 탄생했다. 유럽 도자기의 클래식이 된 츠비벨무스터는 시간이 지나면서 카피와 변종으로 골치를 앓게 되지만 상표법이나 저작권의 인식이 없었던 당시로서는 속수무책이었다. 그래서 대나무 줄기 밑에 작센의 쌍검 문양을 넣기 시작했다.

마이센 초기 양식, 호로닝어르박물관







관음보살상,  
프린세스호프  
국립도자박물관

17세기 초 도자기와 더불어 유럽에서 보물 대우를 받은 중국 덕화요의 백색 도자기 인형이 있다. 당시 유럽에서는 볼 수 없었던 더없이 하얀 관음보살상은 유럽인에게 아기 예수를 안은 성모상을 떠올리게 하는 절대적 매력의 도자기로 '화이트 골드'라는 명칭이 여기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마이센 도자기 이후 유럽 왕실의 외교 선물 품목이 된 도자기의 희소성이 떨어지자 마이센의 장인 쾨들러가 당삼채 도용의 다른 버전으로 만든 도자기 인형이 외교의 꽃으로 수집광들의 표적이 되었다. 마이센 도자기 인형의 출현으로 유럽 사교계 만찬장도 값비싼 설탕 장식품 대신 도자기 인형이 그 자리를 대신하며 요리사의 수고로움까지 덜게 되었다.

그런데 유럽에 불어온 중국풍을 왜 독일어나 영어가 아닌 프랑스어 '시누아즈리'라 했을까?

프랑스는 18세기 중반 후반 주자였지만 자기 생산의 주도권을 쥐고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왕가의 후원 아래 정교한 꽃무늬와 우아한 곡선의 로코코

양식을 화려한 색채와 섬세한 장식으로 표현했다. 이처럼 마이센에 견줄 새로운 양식으로 프랑스가 유럽 문화의 중심이자 확산의 원동력이 되었기 때문에 '시누아즈리'라는 이름이 영향력을 가졌을 것이다.

유럽인의 상상력과 필요에 맞춰 생활용품도 도자기로 만들어졌고, 중국풍에서 벗어나 풍경화에 강렬한 청색을 사용하였다. 여백의 미보다는 자기 가장자리에 기하학적 도안을 추가하기도 했다. 루이 15세의 연인이었던 풍파두르 부인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은 세브르 왕실 자기 제작소는 금채 기술과 자기 표면에 안료를 접착하는 화려한 채색 기술을 개발하였다. 현재 세브르가 하나의 도자기에 낼 수 있는 색이 100가지 정도라는데 그 방법이 200년 전 전통 방식의 데이터를 토대로 이루어진다니 놀랍고 부러운 일이다.

눈길이 머무는 곳에 샬러드 볼이 어여쁘다. 유럽인의 아름다운 상상력을 대표하는 코르넬리스 프롱크의 '파라솔 레이디스' 디자인을 장식했다. 중국에 가본 적 없는 그가 만든 이 패턴은 비싼 값을 내고 중국과 일본에 주문했었는데 유럽 자기가 생산된 후에도 그 인기는 계속되었다.

영국은 1751년 로열 우스터 자기 제작소를 시작으로 다양하고 개성 있는 자기를 생산했다. 1880년대 화가가 그린 세밀한 과일 디자인이 로열 우스터를 대표하며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젊은 과학자이자 도공 웨지우드에 의해 설립된 웨지우드



샬러드볼,  
프린세스호프 국립도자박물관



수레국 꽃무늬 튜린,  
프린세스호프 국립도자박물관



유럽과 아프리카 아이 조각상,  
호로닝어르박물관

는 도기보다 강하고 자기보다는 강도가 약한 '크림웨어'를 샤를로트 왕비에게 선보여 '퀸즈웨어'라는 이름을 하사받았다. 크림색에 규칙적인 8자 배열이 부드러운 샬러드용 체를 만져보고 싶다. 웨지우드 하면 떠오르는 '재스퍼웨어'는 표면에 유약을 바르고 색을 입히는 방식 대신 태토에 물감을 섞고 그 위에 문양을 부착하는 새로운 형태이다. 바다의 여신을 그린 로마의 '포클랜드 꽃병'에서 착안했는데, 1748년 폼페이 발굴 이후 고대 유적지를 여행했던 유럽 상류층의 고전주의 공예품에 대한 열망과 맞닿았다. 더불어 동양 문화로부터 느꼈던 열등감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표현이었다. '재스퍼웨어'는 고대 로마의 전통을 살리면서 자기보다 낮은 온도에서 구워낸 도기로 유럽인의 자신감을 대변하는 독특한 도자기로 평가받고 있다.

아쉬운 마지막 전시품은 슬픈 사랑이 신으로 거듭나는 이야기를 전사기법에 담아낸 '월로 패턴' 접시이다. 산업혁명을 이끈 영국은 인쇄된 문양을 자기에 붙여 굽는 전사기법과 기계의 도입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다. 중국이 만든 도자기 기술이 영국에서 근대화된 것이다. 또한 흰색을 만들기 위해 고품도에 소뿔가루를 섞는 실험 중에 뼈 성분이 도자기 재질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알게 되어 도자기 재료로 소뿔가루를 사용하여 '본차이나'를 개발했다. 본차이나는 틀로 성형하기에 적합했다. 본차이나, 전사기법, 기계화로 자기의 공급이 수요를 넘어섰다. 불과 100년 전 왕실과 귀족의 산물이던 자기가 서민의 식탁에 오르고 종류도 다양해졌다.

소비계층이 넓어지며 희소성과 높은 경제 가치가 매력인 '시누아즈리'는 자연스럽게 쇠퇴하였다. 마이센이 유럽 자기 생산의 원동력이 되었고, 세브르에 의해 고급화된 도자기가 웨지우드에 의해 산업화 대중화하면서 세계 자기의 중심은 자연스럽게 유럽으로 넘어가버렸다.

결코 시들지 않으며 아름다움이 지속되는 도자기 꽃에 대한 열망은 특별한 기술과 끈기, 열정을 동반하며 지금 우리 앞에도 서 있다. 세계와 소통하며 타문화권을 매료시켰던 흙의 미학 뒤에 숨은 폭력과 착취, 아픔의 그림자도 함께 드리워 있다.

무언가 씻어내고 마침표를 찍는 시간, 로열 우스터 접시 위의 싱그런 감은 노을을 한 주먹씩 쥐고 있다. 어디 먼 데서 바람이 불어온다. 나도 도자기 꽃향기에 흔들리고 있다. 🌸

정은정 회원



꽃병,  
프린세스호프  
국립도자박물관



'크림웨어' 샬러드용 체와 받침,  
프린세스호프 국립도자박물관



'월로 패턴'접시,  
프린세스호프 국립도자박물관



# 우아하고 섬세한 도자기 인형

지금 박물관 3층의 세계도자실에서는 ‘도자기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다. 한국, 중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이란 등 여러 나라에서 오랜 세월을 걸쳐 만들어진 도자기들이 저마다의 존재감을 뽐낸다. 청자, 백자, 청화백자, 채색자기 등 갖가지 색깔 뿐 아니라 똑같은 모양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다양한 모습의 도기와 자기가 가득하다.



청자 여인상 촛대, 국립중앙박물관

석기시대 토기 이래 도자기의 가장 큰 용도는 음식을 저장하거나 담는 것이었으며 기술이 발전할수록 쓰임에 꼭 맞는 다양한 모양의 그릇들이 만들어졌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접시 종류가 가장 많고, 어떤 종류의 국물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거기에 맞는 모양의 그릇을 만들었다.

그런데 이번 전시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도자기 인형’, 일명 ‘피겨린’이었다. 도자기를 대하는 태도에서 동서양의 차이를 잘 보여주는 품목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쓰임’보다는 ‘꾸미기’ 쪽에 무게가 실려 있는 피겨린은 서양 사람들이 더 좋아하고 다양하게 발전시켰다. 전시품 중 가장 오래된 ‘인형’은 신안 보물전에서 발견된 <청자 여인 모양 촛대>이다. 1323년경 중국 복건성 천주와 경원에서 물건을 싣고 일본 후쿠오카의 하카다 항을 향해 출항한 배가 신안 앞 바다에 침몰했으나 용천요에서 이 단아한 여인상을 만든 시기를 짐작할 수 있다. 이 인형은 ‘촛대’라는 명확한 쓰임이 있다는 것도 특징이다. 같은 배에서 나온 <세 꼬마 신선상>은 경덕진요에서 만든 백자로 통통한 엉덩이를 가진 세 꼬마가 큰 바위에 기대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장면을 포착했는데,



세 꼬마 신선상, 국립중앙박물관



중국 덕화요 관음상, 드레스덴 도자기 박물관

중국 덕화요 관음상과 마이센 복제본, 드레스덴 도자기 박물관

세기 후반에 만든 작품이다. 이런 모습의 관음상은 유럽인들의 눈에는 아기예수를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를 떠올리게 했을 것이다. 같은 수집품에 있는 ‘백의관음 입상’ 두 점도 흥미로운데, 덕화요에서 1675~1720년경에 만든 상을 마이센에서 1713~1720년경에 본떠 만든 것으로 보인다. 마이센에서 자기 제작에 성공한 해가 1709년이니 아주 초창기 작품인 이 관음상은 도자기가 굽는 과정에서 줄어든다는 것을 잘 몰라서였는지 크기가 많이 작아졌고 대좌에 균열이 생겼으며 손 모양도 어색하다.

이렇게 시작된 마이센의 피겨린은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러시아 등 유럽 여러 나라에서 인기를 끌었고, 외교를 위한 선물이나 왕실 결혼의 혼수품으로 사용되었고 마침내 궁중연회의 장식품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

특별한 쓰임이 없는 순수 장식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인형인 <우아한 자태의 여인상> 역시 경덕진요에서 만든 백자인데 화려한 머리장식과 복장 외에도 표주박 모양 병, 양 같은 장식이 붙어 있다.

유럽에서 처음으로 인기를 끈 피겨린은 덕화요에서 만든 ‘관음보살상’이었다. 복건성에 있는 덕화요의 흙은 끈끈하고 차진 성질로 인물상이나 동물상을 만들기에 적합했다. 33관음 중에서도 하얀 옷을 입고 머리에 흰 두건을 쓴 ‘백의관음’이 특히 인기가 있었는데 아이를 점지해 주거나 무탈하게 잘 크도록 도와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관음보살이었다. 작센의 강건왕 아우구스투스가 수집했던 도자기 중에 사내아이를 무릎에 올려놓은 관음상 역시 덕화요에서 17



마이센 스완서비스, 마이센 도자기박물관



연회 참석자들의 어색함을 덜어주는 ‘아이스 브레이킹’의 소재가 되었고, 피겨린을 바꾸면 요리가 다음 코스로 넘어간다는 신호로도 썼다. 마이센의 조각가였던 요한 요아힘 쾨들러가 1737년부터 5년이나 걸려 완성한 ‘스완 서비스’는 백조가 주 테마이고 바다의 신 글라우코스, 갈라테아와



물고기를 타고 있는 남자 꽃병, 프린세스호프 국립도자박물관

네레이드 같은 바다 요정, 어린 트리톤 등이 등장하는 컬렉션으로 2200개나 되는 자기로 이루어진 100인분 세트였다. 300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팔리고 있는 이 컬렉션의 센터피스 장식은 더 할 나위 없이 화려하고 섬세하다.

이렇게 유럽 전체에서 도자기의 인기가 폭발하고 중국의 명나라가 청나라로 교체되느라 중국

치즈를 옮기는 배 모양 델프트 조각상, 프린세스호프 국립도자박물관

자기의 수입이 줄어들자 네덜란드 동인도회사는 이미 무역을 하고 있던 일본에서도 도자기와 피겨린을 수입하기 시작했다. <기모노 입은 일본 여인상>은 사가현 아리타에서 1700년경에 만든 채색자기로 흰색과 붉은색의 강렬한 대비, 커다란 모란꽃, 턱을 살짝 들고 있는 여인의 표정 등이 만들어내는 이국적 분위기 덕에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한다. <물고기를 타고 있는 남자 꽃병> 역시 아리타 도자기로 흰색과 푸른색, 붉은색, 노란색이 선명한 대비를 이루는 꽃병인데, 물고기의 입에 당시 네덜란드에서 인기이던 툴립 한 송이 정도를 꽂지 않았을까 싶다.

동인도회사를 통해 도자기 무역을 주도했던 네덜란드는 17세기 중반 델프트에서 코발트 안료를 사용한 푸른색 도기를 만들기 시작한다. ‘델프트 블루’라고 불렸던 이 도기는 값비싼 중국산 청화백자의 대용품으로 큰 인기를 끌면서 100여 년간 전성기를 누렸다. <치즈를 옮기는 배 모양 델프트 조각상>은



기모노를 입은 일본 여인상, 프린세스호프 국립도자박물관

1770년경에 만들었는데 푸른색 옷은 입은 남자와 노란색 옷은 입은 여자가 커다란 치즈 덩어리 4개를 배에 싣고 시장(?)으로 가는 모습이다. 배 옆구리에 매달려 있는 커다란 물고기는 아마도 오는 길에 잡은 게 아닐까? 어쨌든 두 사람 모두 발그레한 볼에 살짝 미소를 띤 표정이 행복해 보인다. 델프트 도기를 만들기 시작한 지 100년이 넘는 이 시기에 오면 ‘청화백자 흥내 내기’를 벗어나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과 풍경을 주제로 삼을 정도로 발전한 것이다.

도자기 수요가 늘어나면서 피겨린의 주제도 신화나 동물에 한정되지 않고 연극이나 오페라의 한 장면, 사냥, 스포츠, 연애와 결혼 등으로 다양해졌다. 마이센에서 1760년대에 만든 <양에 둘러싸인 소녀상>을 보면 고운 옷을 차려 입은 양치기 소녀(?)와 세 마리의 양이 섬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하얀 피부와 발그레한 볼, 보랏빛 앞치마, 옅은 노란색에 하늘색 꽃장식이 달린 구두까지 파스텔톤의 색감 표현이 30여 년 전 작품에 비해 훨씬 세련되었다.



양에 둘러싸인 소녀상, 호로닝어르 박물관

19세기가 되어 왕족과 귀족들의 전유물이었던 피겨린의 소비층이 중간계급까지 확대되면서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같은 나라에서는 값이 저렴한 국산품 피겨린을 만들게 된다. 영국에서는 빅토리아 여왕이 키웠던 개 ‘퍼그’의 피겨린이 가장 인기가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마이센의 ‘퍼그 독’ 피겨린과 영국 스테퍼드셔에서 만든 ‘퍼그 독’을 나란히 놓고 보면, 역시 ‘비싼 게 이쁘다.’는 말이 절로 나온다. 🐕

김문숙 회원



마이센 퍼그독, PBS ONLINE®



스테퍼드셔 퍼그독, © 2021 Andrew Dando Antiques



우주관의  
표본이던  
청화백자



이슬람 양식의 중국 백자 청화 주전자, 프린세스호프 국립도자박물관

여기는 가상현실세계(메타버스)인 도자기월드입니다. 도자기 아바타가 되어 15~17세기 플랫폼에 접속합니다. 이 플랫폼에는 여러 방들이 있군요. 이 시대에 유럽을 열광하게 한 도자기 방으로 들어가보겠습니다.

눈부시게 하얀 바탕에 눈이 시리게 푸른 무늬가 그려져 있는 자기가 보이네요. 흰색과 푸른 무늬의 대비가 강렬해서 더욱 좋아해 보이는 이 자기가 청화백자라네요. 인간이 만든 빛깔 맞나요? 파란 무늬가 들려주는 감상에 잠시 빠져 볼까요? 엄마의 손가락 하나를 온 힘으로 거머쥐고는 우주를 다 가진 듯 해맑게 웃는 아가의 미소가 이리 좋아할까요? 청명한 하늘 아래 울려 퍼지는 클래식한 피아노 선율이 이리 기쁨이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빛을 빛을 수 있을까요? 청화백자 아바타에게 직접 들어 볼까요?

중국 청화백자는 대부분이 인도네시아, 인도, 동남아시아, 필리핀, 그리고 대다수는 이슬람으로 수출하기 위한 것이었지요. 이슬람 상인들이 자기를 중국에 주문하면서 특유의 푸른빛을 띠게 하는 페르시아산 코발트 사용법을 중국에 제공했지요. 이는 중국 청화백자가 탄생하는 원동력이 되었답니다. 이 페르시아산 코발트 말이예요. 도자기에 푸른색을 낼 때 사용하는 이 코발트의 유입으로 기존의 상감기법에서 직접 도자기에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지요. 그로 인해 도자기에 그림을 전문적으로 그리는 화공도 등장했지요. 동시에 투명한 유약도 등장했답니다.

보면 볼수록 빨려 들 듯한 청백색의 강렬한 대비, 청화백자. 그 청명감을 따라 유럽의 방으로 건너가봅니다. 중국 청화백자가 바다를 건너 유럽까지 교역되었음을 보여주는 자기가 있다고요. 자, 볼까요? <이슬람 양식 중국 백자 청화 주전자>군요. 이 주전자는 명대 징더전요 상품으로 모란, 국화, 연꽃에 둘러싸인 중국

용무늬가 그려져 있네요. 하지만 전체 모양은 페르시아 금속 주전자를 닮아 이슬람 지역에서 주문한 자기라네요.

중국 도자기가 어떻게 유럽까지 건너가게 되었을까요? 유럽에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대항해의 시대(15~16세기)를 연 포르투갈 상인들에 의해서였는데요. 네덜란드 동인도회사는 1604년 포르투갈 상선 카타리나호를 나포하였는데, 그 배에는 비단이며 칠기와 함께 16톤에 달하는 수천 점의 중국 청화백자가 실려 있었다지요.

청화백자가 아주 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 획기적인 반응을 일으키게 된다고요? 유럽인들은 중국 도자기에서 섬세하고도 낮은, 새로운 아름다움을 발견했던 거지요. 얇고 가벼우면서도 단단하며 투명하게 빛나고 푸른색의 신비로운 그림이 그려진 중국 청화백자를 본 유럽인들은 이 새로운 자기에 열광했지요. 이 이국적인 상품에 사로잡힌 유럽인들은 청화백자를 앞다투어 수집했지요. 중국 자기를 소장하고 방이나 성을 꾸미는 것이 부와 권력을 과시하는 수단이 되었지요. 주로 유럽에서 왕실 또는 상류층의 궁전과 저택을 꾸미는 데 사용된 큰 항아리인 <백자 청화 인물고사무니 항아리>처럼요. 몸체 중앙에 중국의 옛 건축물과 인물들의 모습이 회화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이 재밌군요.



백자 청화 인물고사무니 항아리, 프린세스호프 국립도자박물관

독일 샤를로텐부르크성 안에 있는 ‘자기의 방’을 살짝 구경해 볼까요?

프리드리히가 아내인 소피 샤를로테를 추모하기 위해 이 ‘샤를로텐부르크성’을 지었는데요. 성 안에 이렇게 ‘자기의 방’을 만들었다네요. 방에 빼곡히 진열되어 있는 다양한 청화백자들이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주네요. 중국 자기에 열광하는 유럽 사회의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지요.

벽에 그림이 한 점 있군요. 이탈리아 르네상스 예술가 조반니 벨리니가 공작의 요청으로 그의 성 안을 장식하기 위해 그린 <신들의 연회>라는 그림이네요. 그림 속 신과 요정은 푸른 꽃무늬가 그려진 중국 명대 자기 접시와 발을 들고 있는데요. 이것은 중국 청화백자로, 이슬람 통치자들이 이탈리아 통치자들에게 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네요. 유럽에 온 초기 중국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라고 합니다.

이처럼 유럽을 열광케 한 중국 청화백자의 또 다른 매력을 볼까요? 유럽에 유입된 청화백자 대부분은 독특한 문양 패턴을 가진 ‘크락’ 양식의 자기들이었다네요. 크락자기의 방으로 안내합니다. 유럽인들은 왜 크락자기에 매료됐을까요? ‘크락자기’는 중국 자기 가운데 문양 배치가 독특한 청화백자를 말해요. 그릇 중앙에는 화조문이나 물가풍경, 상서로운 동물, 십장생을 연상케 하는 산수무늬 등을 그리고 그 주변을 6~12개의 방사형 칸으로 나누어 식물과 팔보문





조반니 벨리니, <신들의 연회>, 워싱턴 DC 국립미술관



등을 그려 넣고요. 문양의 배치가 활짝 핀 부엉꽃을 닮았다 하여 '부용자기'라고도 한대요. 크락자기는 식기로 사용되다가 점차 방 전체를 꾸미고 부를 과시하는 용도로 바뀌었다네요.

여기 특이한 접시를 만나볼까요?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마크가 있는 접시>네요. 이 접시 가운데에 네덜란드 동인도회사를 상징하는 VOC 마크가 있군요. 이처럼 유럽 인들은 중국 자기에 유럽 양식을 반영하여 유럽 왕실이나 가문의 문장을 넣기도 한대요. 이 접시의 전체 디자인

은 중국의 크락양식 청화백자를 모티브로 하고 있지요. 6개의 구획을 나눈 창에는 중국풍 꽃무늬를 그리고, VOC 마크 주변으로 두 마리의 봉황과 석류, 동백꽃을 배치했네요. 두 마리의 봉황의 모습이 역동적이어서 생동감이 느껴지네요. 크락자기는 주로 접시와 발, 병이 주요 무역품이었는데, 17세기 이전 무역에서는 크락자기가 발견되지 않고 있어 16세기와 17세기를 구분하는 가늠자가 된다고 하네요.

유럽에서 도자기로 유명한 도시, 네덜란드 델프트도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마크가 있는 접시, 프린세스호프 국립도자박물관



백자 청화 선인무늬 접시, 프린세스호프 국립도자박물관



자기의 방 내부, 독일 베를린 샤를로텐부르크성 ©Reinhardt & Sommer

빠질 수 없지요. 그 방으로 가볼까요? 유럽에 소개된 중국 청화백자의 신비로운 푸른색과 투명한 빛깔, 얇고 매끄러운 감촉 등 이전에 본 적 없는 놀라운 동양 자기에 열광하는 유럽의 자기 시장을 본 델프트 장인들은 중국 자기를 닮은 도기를 제작하게 되었지요. 도기 제작 기술을 향상시키고 푸른색 코발트 안료를 사용하는 등 깊은 푸른색의 '델프트 블루'를 완성하였다네요. 점차 유럽 신화와 건축물과 같은 유럽 문화가 반영된 개성 있는 스타일을 만들면서 델프트 도기는 100여 년간 인기를 누렸다지요.

도자기 아바타가 되어 유럽이 열광했던 청화백자를 둘러보았습니다. 과연 중국 청화백자는 15~17세기 유럽의 생활에 문화적 충격을 안겨줄 만하였군요. 오늘날 유럽의 대표적인 도자기인 독일의 마이센과 네덜란드 델프트, 덴마크 로열 코펜하겐 도자기 등을 탄생시킨 중국 청화백자는 유럽의 음식문화와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주어 동양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게 되었다지요.

이러한 청화백자가 현재까지 유럽 곳곳에 남아 있다 하니, 다음번에는 독일 샤를로텐부르크성, 아우구스투스 2세의 츠빙거 궁전, 포르투갈 리스본의 산투스 궁전 등, 궁전에 남아 있는 청화백자를 직접 보러 가볼까요? 🐼

강현자 회원



백자 청화 뚜껑이 있는 잔, 프리즈박물관



# 송 휘종과 청명상하도, 그리고 선화시대

## 청명상하도와 제국의 이상사회

2010년 중국 상해에서 개최되었던 세계박람회는 ‘BETTER CITY, BETTER LIFE’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보다 나은 도시와 삶’이라는 주제는 현대사회의 도시발전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상해세계박람회에서 관람자들에게 가장 주목을 받았던 섹션 가운데 하나는 중국관에 전시되었던 디지털 입체 영상으로 확대한 100여 미터 길이의 북송北宋시대 명화 <청명상하도清明上河圖>였다.

세계 도시의 미래를 모색하려는 기획 의도에 오히려 중국 고대 도시의 생활 경관을 회화작품으로 표현한 청명상하도를 전시한 것은 그 의미를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상해로 대표되는 중국의 현대 도시와 중화제국의 번영과 풍요를 표상하는 제국의 수도 개봉開封의 도시 이미지를 역사적 연속성을 통해 보여주고자 한 의도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송대 동경東京으로 별칭되는 개봉은 11세기 말 20만 가구와 100만의 인구가 거주하는 세계적 규모의 정치, 상업도시였다. 당시의 문학작품인 『동경몽화록東京夢華錄』에는 수도 동경의 상국사相國寺 일대에 대형의 정기적인 교역 시장이 개설되어 도시의 번영을 대표하고 있다고 묘사하였다.

이 시기 동경에는 6400여 곳의 중·대형 공, 상업 점포와 9000여 곳의 소매업자들의 가게가 주민들의 거주공간과 더불어 분포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청명상하도>는 송대 풍속화의 최고 걸작으로 송 휘종 시기 궁정화가 장택단張擇端(1085-1145)이 북송의 수도인 변량(현재의 개봉)의 번성한 도시 풍경을 그린 것이다. 제목의 상하上河는 변하汴河를 말하는데 이는 개봉을 관통하는 운하로 도시 전체를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장택단은 이 운하를 중심으로 도시의 늘어선 상점들과 변화한 풍경을 보여주는 작품을 완성하였다. 이 작품은 5미터가 넘는 길이의 거대한 작품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펼쳐보면 교외 풍경, 하천 양안의 주변 경관, 시내 가로街路 풍경의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변하를 사이에 두고 교외, 시내(川), 배, 다리, 성문, 시가의 순서대로 화폭을 전개하면서 술집, 상점, 노점, 상인, 우마차 및 군중 등이 배치되는 형식에 사실주의적 화풍으로 그림을 완성하였다. 작품에 표현된 당시의 풍속과 시가의 모습은 당시의 사회경제사 연구의 자료로서도 가치가 높다.



홍교를 건너는 사람들



시장을 지나는 가마들

화면 중반부에 위치한 홍교虹橋의 각양각색의 모습, 특히 손님을 불러대는 상인들의 모습, 경치를 보며 희희낙락하는 행락객들, 다리 중간에 가마를 탄 사람과 말을 탄 사람들이 좁은 길에서 서로 양보하지 않는 모습은 사진처럼 정확하고 사실적으로 재현되어 파노라마처럼 연속되는 한 편의 영화 장면을 관람하는 것처럼 현실적이다.

<청명상하도>는 일터에서 복작대는 많은 사람들로 가득한 도시의 화려함을 의도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잘 다스려지는 이상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정치적 의도로 제작되었다. 청명이란 표현이 승평昇平처럼 평화와 번영을 의미한다면, 청명상하도라는 또 다른 제목은 아마도 수도 개봉의 평화와 번영일 수도 있을 것이다. 북송시대 말기 작품으로 추정되는 이 그림에 나타난 사람들의 다양하고 소박한 삶, 시장의 풍요로움, 북적이는 거리는 평화로운 사회적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던 선화(宣和, 1119-1125)시대 초기를 배경으로 한다.

이러한 이유로 청명상하도는 후세에도 많은 영향을 미쳐 원, 명, 청을 거치면서 수많은 모본이 성행하기도 하였다.

청명상하도는 12세기 송대 동경의 번영과 풍요로운 삶을 묘사한 맹원로孟元老의 『동경몽화록』을 회화의 형태로 담아낸 새로운 시각적 버전의 “동경 스토리”이다. 『동경몽화록』과 <청명상하도>는 모두 북송의 수도 동경의 삶과 경관을 당대의 시각으로 접근하여 분석한 하나의 텍스트이다.

청명상하도는 시점의 이동을 따라 교외 공간에서 도시의 중심부로 옮겨 가면서 출현하는 다양한 경관의 변화와 더불어 도시의 공간 기능의 점진적 변화를 묘사하고 있다. 이는 도성으로 대표되는 제국의 도시들이 더 이상 제국의 정치적 질서를 투영하는 정치적 피사체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기능과 인간 중심의 삶의 공간으로 탈피하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장택단, <청명상하도>, 북경고궁박물관





## 선화시대 宣和時代

휘종 시기에 궁중 화원은 정치적 반대 세력들(구법당)과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설정해 놓은 문화적 표준을 해체하는 정치적 장치로 활용되었다. 휘종은 자신이 통치하는 제국의 새로운 문화적 표준을 설정하고자 하였으며, 현명한 스승, 백성의 아버지로 대표되는 교의적 정설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그는 서예와 시를 궁중 화원의 새로운 필수 과목으로 도입하였으며, 시와 회화를 연관 지음으로서 새로운 예술적 규범도 마련하고자 하였다.

휘종은 회화의 새로운 규범을 마련하기 위해 화원의 화가 집단에 대해 다음의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하였다. 먼저, 자연에 대한 세밀하고 직접적인 관찰에 근거를 둔 사실주의이다. 휘종 자신이 작은 새, 꽃, 바위 등을 세밀하게 관찰하여 사실적으로 묘사한 그림들은 이러한 요구를 잘 보여주고 있다. 다음은 과거의 우수한 회화 전통을 체계적으로 연구할 것을 강조하였다. 궁정에서 소장한 서화작품들은 그 어느 때보다 수적으로 많았고 선별된 소장품의 목록인 『선화화보 宣和畫譜』는 회화 영역의 새로운 규범화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주요 문헌이다. 마지막은 회화에서 시의 詩意를 획득하는 것이다. 그는 화원의 선발시험에서 화제 畫題로 당시 唐詩를 내는 일이 많았다. 그는 시, 서, 화를 한 작품에 결합하는 것을 처음으로 보급한 예술가이기도 한다. 삼절 三絶이라고 하는 이러한 융합은 후대 문인화가들의 규범이 되었다. 휘종의 작품은 모두 과거의 전통과 사실적인 관찰, 시적 이상에 뿌리를 둔 고전적인 아름다움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휘종 치세의 예술적 이미지를 문화사적으로 선화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송 휘종 좌상〉, 타이베이 국립고궁박물원

## 송 휘종과 채경의 청금도 聽琴圖

송 휘종 徽宗(1082-1135) 조길 趙佶은 중국 역사에서 매우 논쟁적인 제왕 가운데 하나이다. 그는 남송 이래 사대부와 사가 史家들에 의해 폐정 弊政에 대한 가장 격렬한 정치적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휘종 본인의 탁월한 문화, 예술적 조예와 성과로 인해 중국 예술사에서 특별한 평가도 받고 있다. 이러한 모순적이고 양면적인 평가로 인해 그는 때면 어리석은 황제와 천재 예술가의 혼합체로 평가되고 있다.

송 신종 神宗의 11번째 아들인 휘종은 황제가 될 가망이 거의 없었으므로 자신의 인생, 문학, 미술, 도가사상에

심취하여 살았다. 그러나 역설적이고 불행하게도 그는 18세의 나이에 권좌를 이어받아 황제로 등극하였다. 그는 재위 기간 황실에 도교를 장려하고, 화석강 花石綱을 비롯한 대규모 토목공사와 정원을 조영하면서 호사스러운 생활로 풍류천자 風流天子라는 칭호를 얻기도 하였다. 정치적으로 초기에는 신종이 단행하였던 신법의 개혁적 조치를 채용하였다. 그러나 이후 채경 蔡京, 동관 童貫으로 대표되는 충신들이 조정에서 막강한 권력을 장악하면서 보수파와 개혁파 간의 정치적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정국의 혼란이 초래되었다. 결국 준비도 관심도 능력도 갖추지 못했던 정치적 상황에서 44세에 부패와 착취, 그리고 정치적 오판이 더해져 제국의 절반을 상실하고 급기야는 이민족의 포로가 되어 북방의 초원에서 비참한 생애를 마감하게 된다. 통치 초기 그의 주된 관심은 국정보다는 도교, 서예, 회화, 예술품 수집, 궁궐과 정원 조성에 있었다. 그의 통치는 세련된 예술지상주의, 사실적 분위기의 새로운 그림들, 훌륭하고 화려한 예술 소장품들로 채워져 있었다.

휘종은 1100년에 즉위하여 26년간 재위하면서 국정에 있어서는 변변치 못하고 무능한 군주의 모습이었지만 제국의 문화와 예술 방면에서는 극히 높은 천부적인 재능과 안목을 갖추었다. 그는 당시 회화예술의 후원자로 역할하면서 다수의 화가들을 발굴하고 새롭게 화원 제도를 정비하여 궁중화가의 신분과 지위를 개선하였다. 아울러 체계적인 화가 양성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특히 재위 기간 동안 역대의 골동품과 그림 글씨들을 수집하고 체계적인 분류법을 통하여 『선화박고도 宣和博古圖』를 편찬하였으며, 주요 화가들의 전기와 그림 목록을 정리하여 『선화화보 宣和畫譜』를 편찬하는 문화 예술의 새로운 르네상스를 마련하였다.

휘종 주변의 총신 가운데 휘종과 예술적 교류가 가능한 최고의 신하는 당대 최고의 서법가인 채경이었다. 그는 현재의 복건성 선유 사람으로 희녕 3년(1070년)에 진사가 되었다. 채경은 당시의 신당파 밀접한 인맥관계를 형성하면서 정치적 수완에도 능숙하였다.



전 조길, 〈청금도〉, 북경고궁박물원





<청금도> 부분



<청금도> 부분

그는 환관 동관(1054-1126)이 강남에 파견되어 서화를 수집하는 업무를 진행할 때 그에게 예술적 자문을 하면서 우호적 관계를 형성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휘종과 호의적인 관계가 되었다.

휘종 집권 26년 동안 채경이 재상의 직책으로 집정한 기간은 17년이다. 비록 3번에 걸쳐 정치적으로 실각하는 위기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조정의 권력 핵심으로 복권되기를 반복하였다. 세 살 때 아버지를 여인 휘종은 채경과는 35세의 연령 차이가 있었다. 두 사람의 관계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다양한 해석들이 역사학계에서 진행되어 왔다. 아마도 휘종과 채경은 정치적으로는 군신관계라 할 수 있지만 사적으로는 채경은 휘종의 사부이자 아버지 그리고 친구로 존재하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휘종 이전에 자기 시대를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일에 관해 그 틀을 마련하고 보급하는 데 휘종만큼 탁월한 재능과 정력을 쏟아부었던 재상은 없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회화예술의 통치적 효용성을 이해하고 강력한 시각적 선전활동의 매체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청금도聽琴圖>는 한때 휘종이 그린 것으로 여겨졌으나 최근에는 화원의 화가들 작품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이 그림은 귀족들이 거문고 소리를 듣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휘종은 도교에 심취하여 궁중에서도 도복을 착용하였다고 전하는데, 청금도의 주인공도 도사의 모습으로 중앙에 앉아 거문고를 연주하고 있으며, 그 앞의 두 사람은 마주 앉아 그 소리를 듣는다.

사려 깊게 경청하는 두 신하 가운데 붉은 옷을 입은 쪽은 나중에 그림의 맨 위에 제시를 쓰는 재상 채경으로 추정하고 있다. 청금도는 휘종 자신이 고관들에게 몸소 거문고를 들려주는 모습을 묘사한 자화상과도 같은 그림이다. 비취색 소나무는 사람들 위로 우뚝 솟아 있고 우아한 정원석은 화면의 전면에 놓여서 앞으로 돌출하는 듯한 입체감을 준다. 아름다운 정원과 눈앞의 기이한 꽃들은 정취를 더하고 탁자 위에 피어오르는 부드러운 향 연기와 희미한 거문고 소리는 군신의 이상적 관계를 형상화하고 있다. 🐼

정대영 한국산업기술대 교수



회원마당 ●●●



딜쿠샤 복원완성도, 서울역사박물관

# 카르마 Karma

##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

버들꽃나무(양화진)에는 15개국 출신의 417명이 안장되어 있습니다. 봉분이 없어 평평한 묘원에 십자가 형태의 크고 작은 묘비들이 이국적인 정취를 전합니다.

“1908년 이후 그는 한국에서 광업기술자, 무역회사 경영자로 일하면서 미국 통신사 AP의 특파원으로 활동했다. …… 한국의 3.1독립운동선언서를 해외에 처음 알렸다. 일제의 제암리 학살사건을 보도하는 등 계속해서 한국의 독립운동을 지원했다.”

1896년 한국에 온 최초의 금광사업가인 아버지와 나란히 묻힌 앨버트 테일러 Albert Wilder Taylor(1875~1948)의 묘비입니다. 조선이 대한제국을 거쳐 주권을 상실한 시기, 역사의 현장을 목도한 한 미국인의 무덤에서 우리와 인연이 닿은 이방인들을 생각해봅니다.

## 서울시 종로구 행촌동, 딜쿠샤

코앞까지 주택들이 빼곡해서 기지개 펴기도 어렵다 싶는데 노거수의 풍채는 당당합니다. 수령 500여 년인 거대한 은행나무가 권을 장군의 집터를 알리는 표지석을 이름표 삼습니다. 굵은 가지들을 힘차게 뺏어 1924년 완공된 붉은 벽돌집을 안내합니다.

서양근대 건축 기술이 도입된 서울의 몇 안 되는 서양식 가옥, 딜쿠샤DILKUSHA. 독특한 이름은 ‘기쁜 마음의 궁전’을 뜻합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의 규모에 아치형 유리 창문과 여름이면 덩굴 식물이 감싸 덮는 포치까지, 동화나라의 왕궁 같습니다. 이 집에 테일러 부부가 살았습니다.



## 아침이 아름다운 나라, 조선朝鮮

인도에서 결혼식을 올린 뒤 1917년부터 한국에서 신혼 생활을 시작한 앨버트 테일러의 아내 메리 린리 테일러 Mary Linley Taylor(1889~1982)는 우리네 모습을 글로 남겼습니다.

“허리를 직각으로 꺾고 벼를 베는 흰옷 입은 농부들은 마치 양 떼 같았다. 그들은 점심을 먹은 후 짚을 엮어 만든 커다란 샷갓으로 얼굴과 상체를 덮고서 부리던 무던한 소를 옆에 두고 바닥에 길게 누워 한숨 잠을 청했다...”

“여자들은 넓은 치마폭을 여며 쥐고 절묘하게 균형을 잡아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등에는 아기를 업은 채 차 속으로 비집고 들어왔다...”

“모자는 또 어찌나 희한하던지! 검은 말총으로 만들었다는 그 모자는 책의 테두리가 반들반들하고 꼭대기 부분은 속이 비쳤다... 모자 속에는 머리 둘레에 넓고 검은 띠(망건)를 두르고 있었다... 내가 보기에 그 모자는 햇빛이나 눈, 바람 따위를 전혀 막아주지 못할 것 같았다...”

우리나라의 이모저모는 유럽과 동양 순회공연을 한 영국 출신 연극배우에게 낯설고 신기한 광경의 연속이었습니다. 호기심 많고 감수성이 풍부한 서양 여성의 시선을 따라서 지난 시절 한국의 일상 속으로 빠져듭니다.

갓은 머리보다 머리카락을 보호하는 용도였습니다, 망건의 다른 이름은 ‘다른 모든 두통을 싹 짓게 하는’ 두통거리라고 합니다. 노인들이 들고 다니는 ‘손목에 대롱대롱 걸려 있는 돛 형태의 신기한 상자’의 정체는 갓통이었습니다. 실내에서 쓰는 작은 잠자리채처럼 생긴 것(탕건)을 넣었습니다. 비가 올 때는 기름 먹인 종이로 만들어 부채처럼 접고 펴는 ‘작은 천막 모양의 것’(갈모)을 머리에 썼습니다.

담장 너머로 젊은 여자들의 머리가 오르락내리락한 것은 가마니를 둘둘 말아 가운데에 두고 그 위에 긴 널빤

지를 올린 ‘너무나 이상한 시소’ 때문이었지요. 메리 테일러는 한밤의 고요를 깨고 들려오는 파도처럼 높아졌다가 낮아지는 리드미컬한 소리도 궁금했습니다. ‘큼직한 나무토막 같은 데 옷을 올려놓고 야구방망이 비슷한 방망이 두 개로 두드리느’ 다듬이질이 다림질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책장을 넘기다 보면 백 년 전 우리네 삶의 면면들이 손에 잡힐 듯 생생해집니다.

## 김주사와 황금각대

테일러 부부는 25여 년 조선에 거주하면서 많은 인연을 맺습니다. 여러 사람들 중 부부의 집안일과 사업을 맡았던 김주사(주사는 관직명, 본명은 김상언)를 소개합니다. 영어에 능통하고 역관으로 미국 방문 경험이 있는 그는 양반의 체통을 지키느라 좀처럼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런 김주사가 흥조를 띠며 마음속을 내보인 일이 있었습니다. 조선을 방문하는 관광객이나 주재하는 외국인을 상대로 한 테일러상회는 ‘태양 아래 모든 것’을 수입하며 조선의 물품들과 함께 판매했습니다. 김주사가 눈에 띄지 않게 두어 팔리지 않도록 애쓴 물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홍옥수가 박힌 멋진 황금 각대였지요. 김주사의 환갑잔치 날, 앨버트 테일러가 그 각대를 선물하자 그가 사연을 밝힙니다. 청나라에 조공을 마지막으로 보내고 고종이 받은 선물로, 이후 청나라로부터 조선이 독립을 선언하였기에 각대는 독립의 상징물이나 다름없었던 것입니다.

메리 테일러의 환갑선물은 직접 그린 김주사의 초상입니다. 각대를 차고 전통 의관을 갖추 입은 모습에 우리의 독립을 소원한 그의 마음과 정신을 담아냈습니다. 부부가 추방된 후 일제에 의해 고문을 받고 후유증으로 사망한 그는 체포 전 집 천장에 태극기를 숨겨놓았다고 합니다.



〈농부 초상화〉, 서울역사박물관    〈공서방 초상화〉, 서울역사박물관    〈순지네 초상화〉, 서울역사박물관    〈김주사 초상화〉, 서울역사박물관

- 메리 L 테일러의 그림들

1992년 출간된 메리 테일러의 자서전에는 1942년 조선 총독부에 의한 강제추방 전까지 달쿠샤에 살았던 테일러 부부의 극적인 삶의 여정과 1948년 남편의 유골과 함께한 한국으로의 마지막 방문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 땅의 기억

2021년 3월 달쿠샤는 일반에게 공개되었습니다. 건물 외관은 복원되었고 고증을 거쳐 내부 거실은 1920년대 테일러 부부가 살던 당시의 모습으로 재현되었습니다. 살림집에서 ‘서울 앨버트 테일러 가족’ 전시관으로 탈바꿈한 곳에서 몇 해 전 달쿠샤에 대해 처음 알게 되었을 때 설핏 들었던 생각들을 떠올립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3.1만세운동 전야에 아이를 낳은 아내와 거리에서 만세를 부르는 한국 사람들과 고종의 인산을 목격한 남편, 그들이 우리 역사의 한복판에 선 것은 우연일까, 운명일까?’

‘식민지시대 광산운영과 사업으로 갑부가 되어 일하는 사람을 여럿 두고 생활한 서양인부부의 경성 저택,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겐 다른 세상일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는지.’

창 너머로 메리 테일러가 한눈에 반해 집터를 정하게 한 권율장군의 은행나무가 보입니다. 온몸으로 오랜 세월의 풍파를 견디어 낸 ‘은행나무골의 주인장’이 넉넉하고 의연한 모습으로 달쿠샤의 오늘을 지켜본다고 느껴집니다. 전시실에는 2016년 한국에 기증된 부부의 유품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테일러 부부와 가장 오래 시간을 함께한 전시품 앞에 섭니다. 어린 메리를 사로잡은 집안의 소장품, 앨버트가 메리에게 건넨 선물, 메리 테일러의 자서전 제목... 이 모두에 호박목걸이가 있습니다. 문지르면 다른 물질을 끌어당기는 호박, 달쿠샤에 우리의 관심과 애정이 계속되었던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동양에서는 호랑이의 영혼이 담겨 있어 영험하다 여긴 호박을 메리 테일러 역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한다고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그녀의 믿음대로 달쿠샤의 앞날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

문정원 회원



# 까치와 토끼가 가는 길

西當太白有鳥道, 서쪽 태백산에 조도(鳥道)가 있어,  
可以橫絕峨眉巔. 아미산 꼭대기까지 뻗어 가로지를 수 있네.  
地崩山摧壯士死, 땅이 무너지고 산이 꺾여 장사들이 죽으니,  
然後天梯石棧相鈎連. 그리고선 사다리와 잔도로 연결되었네.  
上有六龍回日之高標, 위에는 육룡이 해를 휘감은 정상석이 있고,  
下有衝波逆折之回川. 아래엔 뒤엎혀 부딪히는 강물이 굽이치네  
黃鶴之飛尚不得過, 황학이 날아봐도 부질없고,  
猿猱欲度愁攀緣. 원숭이가 건너려 해도 두려워 매달리지 못하네.

이백李白의 유명한 시 촉도난蜀道難에는 잔도棧道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태백산은 당나라의 수도인 장안長安 서쪽에 있고, 아미산은 촉한의 수도였던 사천성 성도成都 남쪽에 있다. 촉蜀이라고도 하는 사천성은 험준한 산맥으로 둘러싸인 분지라서 새가 가는 길이라고 할 만큼 아찔한 산길을 건너, 장강 삼협을 통과해 물길로 가는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런 길로는 물자와 병력 수송이 곤란하기 때문에 벼랑에 구멍을 파서 나무 기둥을 박고 그 위에 널빤지를 올리는 어려운 작업을 통해 잔도를 만들어냈다.

잔도를 보고 감탄한 다음엔 이걸 만드느라 얼마나 많이 죽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작업하다가 실족해서 떨어지기도 하고, 벼랑에 구멍을 뚫다가 산사태가 나서 깔리거나 쓸려 나가기도 했을 텐데. 만들기만 하면 다가 아니다. 습한 지역에서 나무와 끈으로 된 길의 유지 보수는 잘 됐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 건 민간의 편의만을 위해서는 절대로 생겨나지 못할 길이다. 그런데 초한지에선 유방이 파촉으로 들어가면서 장량의 조언에 따라 잔도를 불태우고, 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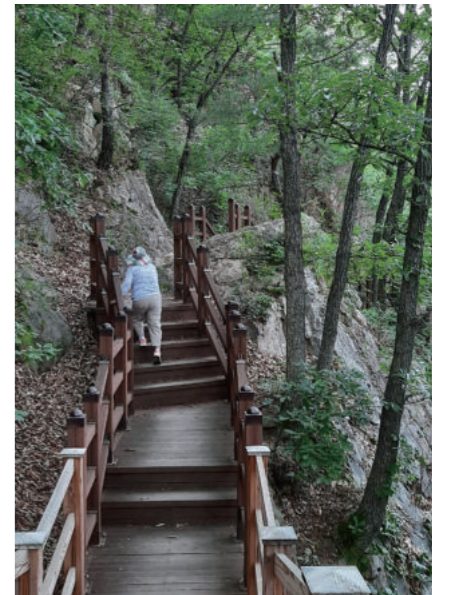
사천성 명월협잔도, 윤태욱 촬영

국지에선 제갈량이 북벌을 위해 잔도를 만든다. 이렇게 위정자에게 전쟁이라는 목적이 생기면 이 어려운 일을 똑딱 해내기도 하고, 필요하다면 기껏 어렵게 만든 것을 쉽게 없애기도 했다. 그리고 교통수단이 좋아져서 잔도가 필요 없어진 오늘날에도 중국 각지의 명승지에선 관광수입을 바라는 자들이 과거의 잔도의 흔적을 찾아 보강하고 튼튼한 새 잔도를 만들어서 호기심 가득한 관광객들의 주머니를 열고 있다.

남쪽에 살면서 여기저기 잘 돌아다니는 친구가 낙동강 변을 걷다가 잔도를 보았다고 했다. 우리나라에도 잔도가 있었나? 보내준 사진을 보니 앞서 언급한 중국 잔도의 모습은 아니었다. 하여간 그것은 조선시대 한양에서 동래로 가는 최단거리 간선도로인 영남대로의 흔적인데, 밀양시 삼랑진에서 낙동강 자전거길을 따라 양산시 물금 쪽으로 걸어가면 볼 수 있다고 했다. 나 같은 뚜벅이 여행자도 어렵지 않게 갈 수 있는 길 같아서 직접 가보고 싶어졌다.

작년 봄, 부산 이모 댁에 짐을 풀고 구포 역에서 삼랑진 역으로 열차를 타고 가서 하류 쪽으로 걷다가 원동역이나 물금역에서 열차를 타고 구포로 돌아가는 계획을 세웠다. 잔도를 보러 삼랑진에 가겠다고 했더니 이모는 굳이 먼 그곳까지 갈 필요 없이 더 가까운 황산공원이라는 곳이 좋고, 거기에도 잔도가 있다고 하셨다. 또 다른 잔도가 있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다. 알고 보니 영남대로에만 해도 잔도가 다섯 개 있었다고 한다. 이 지역에 두 개, 문경에 있는 관갑천잔도(토끼바리), 그리고 지금은 없어진 두 개.

결국 계획변경. 부산지하철 2호선 호포역에서 내려서 낙동강 둔치로 내려가면 거기에 황산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과거 낙동강을 황산강이라고 불렀는데, 황산은 물금읍의 옛 지명이다. 황산역이라는



관갑천잔도



행동래부사정공현덕영세불망비







황산잔도

큰 규모의 역참 소재지이자 육로 교통의 요지라 양산보다 경제규모도 훨씬 크고 붐볐다고 한다. 하지만 왕조가 망하고 교통로가 바뀌고 최근까지도 각종 개발계획에서 물금읍이 소외되면서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조용한 고장이 되어버렸다.

공원은 강변을 따라 제법 넓게 펼쳐져 있는데, 상류쪽으로 올라가면 공원 폭이 좁아진다. 부산 동래에서 시작하여 노포동을 지나 사매고개를 넘어 양산읍성과 황산역을 거쳐 영남대로를 따라 북상하는 사람들은 황산역을 지나 대략 이 지점부터 강가로 나와 '황산잔도' 또는

'황산 벼랑길'이라고도 부르는 좁다란 벼랑길로 접어든다. 다행히 요즘은 강 위로 갈 수 있게 설치해놓은 데크를 따라 편하게 다닐 수 있다. 단 자전거가 달리는 길이라 치이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옛 흔적이 있는 지점마다 지자체에서 설치한 안내판들과 이정표들이 있어서 답사하기 편리하다.

걷다 보니 벼랑 중간 나무와 수풀 사이에 있는 웬 비석이 눈에 띄었다. 고종 때 동래부사를 지냈던 정현덕의 송덕비였다. 이런 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변에 세우는 것이니 분명 저 부근에 길이 있었다는 건데 그러기엔 너무 가파르고 좁은 곳이다. 그리고 안내판엔 황산잔도가 있는 곳이라고 써 있는데, 내가 상상하던 잔도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알고 보니 이 지역에 경부선 철도가 놓일 때 영남대로를 따라 건설했기 때문에 잔도는 기차길이 되어 있었다. 데크가 놓이기 전에 영남대로를 도보 답사한 사람들의 글을 보면 없어진 길을 더듬어가며 철로 위로 걷고 터널을 통과하는 모험담이 나온다.

올 봄에는 드디어 그 친구와 함께 그 잔도를 보러 갔다. 차를 몰고 조령관과 함께 영남대로 양대 관문이었던 작원관 터를 지나 근처 마을에 주차를 하고 강 쪽으로 조금 걸어가 굴다리를 통과해 나가니 낙동강이 펼쳐졌다.



작원잔도

좀 걷다 보니 잔도의 흔적을 만났다. 작원鵲院잔도 또는 작천鵲遷잔도(까치비리)라고 부르는데, 비리는 이 지역 방언으로 벼랑이라는 뜻이다. 축나라 가는 험한 길을 새가 가는 길(鳥道)이라고 한 것처럼 우리 옛 사람들도 이 길에 까치 같은 날짐승이라야 다닐 수 있는 길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럼 문경의 토끼비리는 토끼 정도는 왜야 다닐 수 있는 길인가 보다. 작원잔도의 위치와 생긴 모습을 보니 축나라 가는 길만큼 무시무시하진 않지만, 그 위를 걷는 사람 입장에선 오금이 저릴 수밖에 없는 길이다. 동국여지승람에 한 수령이 떨어져서 물에 빠졌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다. 사실 황산잔도 쪽에도 그런 종류의 이야기가 있다.

그러니 이 길을 만들고 보수하는 데 동원된 사람들의 고생은 말도 못 했겠다. 그들은 가파른 경사지 아래쪽에 기둥 돌을 세우고 그 위에 편평한 돌을 얹어 길을 닦았다. 이런 어려운 일에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는 이유는 길이 관도官道였기 때문이었다. 역시나 조선에서도 잔도를 만들고 유지하려면 국가권력이 필요했다. 누가 이 힘든 일을 그저 다니기 편하자고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보나마나 새로운 부사가 부임할 때라든가 홍수나 산사태가 나서 길이 유실되면 온 동네 사람들이 나와 울러 올 것을 했을 것 같다. 하지만 막상 일반 백성들은 잔도를 편하게 이용하지는 못했다는 글을 읽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길이지만 관로管路이다 보니 그 좁은 길로 양반들이나 관리들이 많이 지나다니는데, 그 좁은 길에서 마주치면 난감했기 때문에 언양읍성 쪽으로 우회하는 길도 많이 이용했다고 한다. 잔도엔 피맛골이 없다.



작원잔도

고속도로나 열차를 이용할 때 창 밖에 산이 계속되고 연달아 터널이 나오는 것에 별 감흥이 없었다. 늘 보던 풍경이니까. 그리고 내가 탄 차나 열차가 어마어마하게 높은 구름다리를 수없이 많이 가로지르고 있다는 것을 타고 있을 땐 잘 느끼지 못한다. 온통 산으로 덮인 이 땅에서 우리는 산을 뚫고 다리로 계곡을 쉽게 건너지만 옛 사람들은 산 넘고 또 넘어 힘들게 산길을 걸어야 했다. 그래서 산을 털 넘어보자고 만든 것이 잔도였다. 그리고 보니 터널과 구름다리는 현대의 잔도라는 생각을 해본다. 이 역시도 큰 힘이 없으면 만들기도 유지하기도 힘들다는 점에서도 비슷하다. 아! 그리고 보니 우리집 뒷산 산책로가 생각났다. 나무 데크를 산허리에 두른 것이 영락없는 잔도의 형상이다. 진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람 사는 건 다 비슷한가 보다. 🌍

서유미 회원





살홍어,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

## 바다가 시켜준 세상구경

### 스물다섯 살에 당신은 어떤 모험을 하고 있었습니까?

순조 1년(1801) 우이도에 사는 문순득은 성공한 청년 사업가였습니다. 흑산도 홍어를 사서 배에 싣고 영산강을 거슬러 올라 나주 영산포서 팔고, 돌아올 때는 쌀과 온갖 육지의 상품을 사다가 섬사람들에게 팔아서 이문을 남겼습니다. 우이도는 목포 앞바다에 뾰뾰하게 들어찬 섬들 중에서도 서쪽 가장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먼바다가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거기서부터는 내내 바다뿐이다가 한참만에 흑산도가 나타납니다. 홍어가 洪魚인 이유는 넓은 바다에서 잡히기 때문입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서해바다에 흩어져 살던 홍어들이 산란하기 좋은 흑산도 인근 바다로 모여들고, 통통하게 살이 오른 홍어를 잡기 위해 홍어잡이 어선들은 요즘도 전통 방식에 따라 주낙을 드리우고 기다립니다. 고려말, 왜구의 집요한 서남해안 약탈에 지친 조정에서 도서민들을 내륙으로 강제이주시킨 후에도 섬사람들은 기어이 그들의 터전인 바다로 돌아갔고, 이들을 통해 식힌 홍어 맛을 알게 된 육지인들의 수요 때문에 흑산도에서 영산포에 이르는 홍어 장수들의 뱃길은 600년 이상을 이어졌습니다. 그해 12월 스물다섯 새신랑인 문순득은 다섯 명의 일행과 함께 제철 홍어를 사러 흑산도 남쪽 태사도로 떠났습니다.

같은 해 초에 신유박해가 있었습니다. 순조의 즉위로 정권을 잡은 벽파가 남인과 천주교도들을 대대적으로 숙청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생전에 정조가 아끼던 정약전, 정약용 형제는 다행히 극형을 면했으나 각기 흑산도와 강진으로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1801년 11월, 마흔넷의 정약전은 나주 다정포에서 배에 올라 소흑산, 즉 우이도에 닿았습니다. 겨울 바다가 험하고 흑산도의 추위가 혹독하므로 일단 우이도에서 유배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홍어잡이 배, 목포해양유물전시관

그해 여름 태풍이 지나간 제주도 당포 해변에는 온몸이 옷칠한 듯 새까만 두 사람을 포함해 다섯 명의 표류민들이 나타나 주민들을 화들짝 놀라게 했습니다. 실록에 따르면 필담도 통하지 않고 말을 하면 왜가리가 짓는 것처럼 들리는데 “막가외(마카오)”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이들은 남방의 백성들로 30명이 장사를 하려고 화물을 싣고 가는 중이었는데 다섯 명이 물을 길으러 작은 배를 타고 내린 사이 풍랑이 심해지자 큰 배가 그들을 버려 두고 가버린 것입니다. “다섯 명의 이름과 나이는 이렇다. 분안시 22세. 열리난두 25세. 안드러수 24세, 그리고 옷칠한 사람 둘은 32세의 마리안두와 33세의 끼이단우였다.” 그러나 제주의 관리들도, 보고를 받은 조정에서도 이들이 대체 어느 나라에서 온 사람들인지 알아낼 방도가 없었습니다.

태사도에서 머물며 홍어를 사들인 문순득 일행은 이듬해 정월 18일 영산포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대흑산도와 태사도의 중간 정도 왔을 때 갑자기 서북쪽에서 일어난 큰바람이 몰아쳤습니다. 밤새 수백 리를 남쪽으로 떠밀리는 동안 키 자루는 꺾어버렸고, 멀리 제주도가 눈에 들어왔으나 사나운 바람은 이들을 다시 망망대해로 밀어버렸습니다. 이제부터는 미지의 바다였습니다. 목숨을 건 표류는 열하루나 계속되었습니다. 마침내 이들이 도착한 곳은 유구(류큐)국, 오늘날의 오키나와였습니다. 늘 다니던 뱃길에는 꽤나 익숙했을 사람들이, 여태 알던 세상의 경계 밖으로 내던져진 것입니다. 다행히 유구인들은 이들을 조선인으로 알아보았고, 친절하고 호의적으로 대해주었습니다. 청으로 가는 조공선에 타고



장한중, <어해>, 국립중앙박물관

본국 송환길에 오르기 전까지 약 9개월 동안 문순득은 유구인들의 생활 풍습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머릿속에 저장했습니다. 왕성한 호기심과 친화력은 표류민이 아니라 언어와 문화를 익히려 온 유학생이라 불려도 모자랄 정도였습니다.

1802년 10월에 문순득 일행은 유구에 표류한 중국인 32명과 함께 유구국의 호송선을 타고 복건성 복주(푸저우)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북경으로 가면 조선의 사신들과 함께 귀국할 수 있을 터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우연인지 이들은 또 한 번의 풍랑에 휘말려 여송국(필리핀 루손)





문순득 경로

의 일로코스 지방에 닿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문순득 견문기의 2부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송에서도 조선을 알지 못하므로 이곳에서 문순득 일행의 입지는 참으로 애매했습니다. 중국인 표류민들을 따라 그곳에 진출해 있던 복건성 출신 중국인들에게 의탁하였으나 스스로 생활비를 벌어야 했고 나중에는 광둥성 오문(마카오)으로 가는 상선에 타기 위해 뱃사도 모아야 했습니다. 준비된 표류민 문순득은 여송인들에게 새끼를 꼬아 팔고, 목수일도 했습니다. 남다른 눈썰미와 기억력 이외에 생활력도 특출한 청년이었습니다.

1803년 5월 광둥성에서 온 상선이 도착했고, 바람 때를 맞춰서 8월에 출발한 배에 올라탄 문순득은 배 안의 취사도 스스로 해결하며 9월 9일 마카오에 닿았습니다. 여송에서 에스파냐 문물을 보았다면 마카오에서는 포르투갈의 영향을 비롯해 당대에 가장 변화한 동서 교역항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조선 간의 표류민 소환 관행에 따라 북경을 거쳐 조선 사행단을 따라 한양으로

왔고, 마침내 고향 우이도로 돌아왔습니다. 1805년 1월 8일, 3년 2개월 만의 기적적인 생환이었습니다.

돌아온 그를 반긴 이들 중에는 문제의 1801년 겨울에 우이도에 도착한 유배객 손암 정약전도 있었습니다. 서학과 천주학에 매료된 실학자에게 중화권 바깥을 보고 돌아온 문순득은 견고한 벽에 뚫린 창문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예리하게 관찰하고 사진처럼 기억하는 능력자 문순득과 서양 실용학문에 대한 갈증을 풀 길 없는 처지인 손암의 만남. 상상해보면, 두 사람의 대담은 문순득의 기억을 되살리고 또 그가 자신이 본 것을 더 잘 이해하도록 했을 것입니다. 또 차마 기록할 수 없었던 대화들도 얼마든지 오갔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송국 비간에서 본 웅장한 신묘(세인트폴 대성당) 이야기를 들은 손암이 천주교 신앙에 관해 설명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절해고도에 몸이 묶인 손암은 표류에서 돌아온 문순득을 통해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정리하여 <표해시말>이라 명했고 문순득에게는 천초(天初)라는 자를 지어주었습니다. 책의 말미에는 문순득이 익힌 유구 말과 여송국 말을 모아 우리말 풀이 사전까지 단정하게 덧붙였습니다.



우이도 선창, 전라남도기념물

이제 다시 1801년 여름 제주도에 표류한 남방 사람들에게 돌아가봅니다. 귀환하고 4~5년 되었을 때 드디어 이들의 딱한 처지를 전해 듣고 문순득은 서둘러 제주도로 내려가 그들을 만납니다. 자신이 3년이 넘도록 타국을 떠도는 동안 현지인들의 호의와 배려 덕에 살아 돌아올 수 있었음을 잘 알았기에 그는 제주도에 9년째 방치된 이 이방인들이 더욱 안타까웠습니다. 마침내 말이 통하는 이를 만난 여송인들은 웃다가 울다가 하며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중국을 통한 송환이 결정되었으며, 이들은 마침내 귀향길에 올랐습니다. 문순득이 보고 경험한 내용은 <표해시말> 이외에도 정약용의 <경세유표>에 인용되었고 이강희의 <운곡선설> 집필로 이어졌습니다. 글 모르는 일개 흥어장수의 표류기가 당대 실학자들에게 놀라운 영감의 원천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이강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문천초는 변방의 섬사람으로 탄환 같은 조그만 땅에서 나고 자라 눈으로 고무래 정(丁)자도 알지 못하지만 총명함이 두루 미치어 보통 사람과 다르다. 그래서 이국에 표류하여 두루 살펴본 바를 구술하여 글로 남기게 되었다. 그러나 함께 배에 탄 다섯 사람은 한 가지도 아는 것이 없고 유독 이 사람만이 사물을 살펴보는 데 정미精微하여, 조그만 일 하나도 거친 마음이나 거친 눈으로 범연히 간과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이 시원스럽게 밝혀 놓을 수 있는 것이다.”

1801년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과 문순득의 기막힌 두 차례 표류는 마치 당시 아시아의 바다에 <표해시말>이란 진귀한 언어, 문화 자료집을 탄생시키려는 신성한 기운이 작동하지 않았나 생각하게 만듭니다. 바람에 떠밀려 아직 잠들어 있는 조선을 벗어나 본 문순득은 소중화사상에 젖은 사대부가 아니었기에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싱싱한 흑산도 흥어가 영산포에 도착하면 특 쏘는 식은 흥어로 변신하듯, 바다가 던지듯 보내준 여행을 통해 그는 자신의 진가를 드러냈습니다. 물론 이는 우이도에서 그를 맞이한 정약전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표류해 간 난민의 처지에도, 절도안치 당한 유배인의 처지에도 사물과 사람들에 관한 관심과 탐구는 삶에 활기와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신묘한 우연과 환상의 콜라보로 탄생한 문순득의 표류기는 고난에 대처하는 인간의 능력에 있어서도 새로운 이상을 제시하기에 그 울림이 더 깊고 넓습니다. 🌊



19세기 일로코스, 비간시티, 드레스덴 민족학박물관

황문영 회원



# 2021년 국립중앙박물관 전시 계획



A GREAT CULTURAL LEGACY 위대한 문화유산을 함께 누리다  
 2021.7.21. ~ 9.26. 9:00AM ~ 5:00PM

## 1 특별 및 테마전시

기간	구분	명칭
2021.07.21(수) ~ 2021.09.26(일)	테마전	위대한 문화유산을 함께 누리다: 고해이건희 회장 기증 명품전
2021.05.18(목) ~ 2021.09.26(일)	특별전	호모사피엔스: 진화∞ 관계& 미래?
2021.04.28(수) ~ 2021.09.26(일)	테마전	빛을 펼치다: 국보 제299호 공주 신원사 괘불
2019.12.16(월) ~ 2021.11.07(일)	테마전	이집트실: 삶, 죽음, 부활의 이야기

## 2 상설전시

기관	구분	주소
2021.01.25(월) 개관	상설전	세계도자실: 도자기에 담긴 동서교류 600년
2021.01.25(월) 개관	상설전	일본실: 무사문화와 예술의 후원자
2021.02.18(목) 개관	상설전	분청사기 백자실

## 3 디지털 실감 영상관

기관	구분	주소
2020.05.20(수)~	영상전시	영상관 1, 2, 3 및 경천사 십층석탑



<가락바퀴>, 신석기실

## 신석기시대의 직녀는

뱅그르르  
 가락(막대)을 끼운 가락바퀴(방추차)가 춤을 춥니다  
 팽이마냥 돌아갑니다  
 오호라  
 실이 꼬여가며 이어지네요  
 실타래가 하나, 둘...  
 딸아이의 저고리  
 아들내미의 바지  
 마음으로 지으렵니다 🌍



# 국립중앙박물관회는

1974년 9월 9일 발족하여 1981년 3월 7일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洪鐘仁 초대 회장을 비롯하여 金一煥, 李大源, 金相万, 金聖鎮, 鄭鎮肅, 金榮秀, 俞相玉, 柳昌宗, 金正泰, 申聖秀 회장을 거쳐 2020년 11월 尹在倫 회장이 취임했다.

會 長	尹在倫					
副 會 長	朴殷寬 尹碩敏					
常任顧問	申聖秀					
當 然 職	閔丙贊					
理 事	金錫洙	金信韓	金賢銓	南秀淨	朴善正	朴宣注 朴禎原 禹燦奎
	俞承熹	李玉卿	鄭溶鎭	趙顯相	崔杜準	許榕秀 洪政旭
監 事	金教台 李教祥					
事務局長	李在範					

회원은 현재 3,000여명으로 일반·특별·기부회원이 있으며, 국립중앙박물관에 유물이나 자료를 기증한 분도 평가 및 심의를 거쳐 기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기부회원은 백두 백억 원, 청룡 오십억 원, 백호 삼십억 원, 주작 십억 원, 현무 오억 원, 천마 일억 원, 금관 오천만 원, 은관 삼천만 원, 청자 일천만 원, 백자 오백만 원, 수정 이백만 원 이상으로 한다.

<b>백호회원</b> 삼성전자	金益煥 金芝延 金知爰 金賢銓	한세실업(주) 부회장 (주)컨셉 대표이사 한세엠케이(주), (주)한세드림 대표이사 히든베이호텔 사장 갤러리현대 대표이사 SB Investment 사장 팬택씨앤아이 대표이사 회장 진 국립중앙박물관회 이사 대선제분(주) 대표이사 사장 아성다이스 부사장 컴투스·게임빌 의장 두산메카텍(주) 부회장 학원문화재단 이사장 학교재 대표 코리아나화장품 회장 MashupAngels 대표 서울가든호텔 사장 경신금융(주) 대표 일우재단 이사장 세아제강 부사장 (주)삼익유니버스 대표이사 한미헬스케어(주) 대표이사 사장 (주)교원인베스트 대표이사 선인자동차·고진모터스 대표이사 전 서울시향 예술감독 사우스케이프 회장 우양산업개발(주) 대표이사 (주)동남유화 회장 (주)이도 대표이사 MIGHT&MAIN(주) 사장 진양자산관리주식회사 대표 GS건설 사장 회원	金英姬 金載勳 金鍾漢 南兌勳 柳芳熙 朴環鎭 朴漢正 朴知原 徐載亮 成來恩 成弼鎬 宋 哲 辛炳讚 沈宗玄 梁洪碩 柳昌宗 尹賢慶 李常宰 李廷龍 丁恩美 崔雄善 咸泳俊 洪正道 洪進基	회원 영풍제약 대표이사 (주)종합전기 대표 국제약품 대표이사 (주)풍산주텍 회장 진주햄 대표이사 부사장 V&S자산운용 이사 두산중공업 대표이사 회장 전 국립중앙박물관회 부회장 (주)영원무역홀딩스 대표이사 사장 광성기업(주) 대표 성문출판사 대표 전 국립중앙박물관회 사무국장 한국가구박물관 부관장 대신증권(주) 사장 전 국립중앙박물관회 회장 동화약품 상무 (주)삼화택시 대표이사 가나아트갤러리 대표이사 블룸앤코 대표 (주)인팩 대표이사 (주)오뚜기 회장 중앙그룹 대표이사 사장 마리오아울렛 이사	<b>청자회원</b> 姜承模 高基瑛 具東輝 具本權 具本商 具本郁 具本赫 具瑗姬 鞠賢永 權志德 權宅煥 金建昊
<b>주작회원</b> 金正泰 尹光子	하나금융그룹 회원				
<b>현무회원</b> 朴殷寬	(주)시몬느 회장				
<b>천마회원</b> 金錫洙 金信韓 南秀淨 襄東眩 孫昌根 申聖秀 申憲澈 尹碩敏 尹章燮 尹在倫 李玉卿 鄭溶鎭 全裁範 趙顯相 千信一 許榕秀 許允秀 洪錫肇 洪政旭	동서식품(주) 회장 MIT Visiting Fellow (주)넷애프드 사장 창성그룹 부회장 소장가 고려산업(주) 회장 SK에너지 태영그룹 회장 전 성보문화재단 이사장 성보문화재단 이사장 서울옥션 부회장 신세계그룹 부회장 금강공업(주) 사장 효성그룹 부회장 세종문화재단 이사장 GS에너지 대표이사 사장 (주)알토 대표이사 사장 (주)BGF리테일 회장 올가나가 회장				
<b>금관회원</b> 姜德壽 庚 圓 權俊一,具在善 金教台 金南延 金承謙	진 (주)STX 회장 극락사 주지 Actium Group 부회장 삼정회계법인 대표 (주)동훈 대표이사 서룡지주(주) 대표이사 의장	<b>은관회원</b> 姜院基 金大煥 金寧明	오리는 베트남 법인 대표이사 (주)슈페리어·슈페리어홀딩스(주) 사장 (주)에 을 이사장		

金京暎 金京姬 金洛昇 金東官 金東準 金斗植 金美媛 金叵洙 金相潤 金性南 金性完 金世淵 金永珅 金榮秀 金寧慈 金英惠 金裕錫 金侖壽 金恩惠 金仁順 金載烈 金正宙 金宗學 金志泰 金兌炫 金澤辰 金賢剛 노 석 潭舒元 柳重熙 文水姬 문윤희 민병철 閔俊棋 박범준 朴仙卿 朴宣注 朴世昌 朴載相 朴載蓮 朴廷彬 朴正遠 박주원 朴俊泳 朴海春 朴惠晟 方正梧 裴允植 白晉宇 徐東姬 薛允碩 孫元洛 申硯均 辛永茂 愼昌宰 辛春洙 楊仁集 梁汰會 魚湖善 吳勝敏	회원 (주)피어나조경 대표이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이사 한화 솔루션 대표이사 사장 키움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회원 (주)삼익악기 스페코 부회장 유리자산운용 경영기획실장 한영회계법인 부대표 스무디킹 Global CEO 동일고무벨트(주) 부회장 김&장 법률사무소 한국청소년연구소 이사장 (주)에올 명예이사장 제일화재 이사장 (주)행남 대표이사 지리산 문학관 관장 지알엔주식회사 상무 한익환서울아트박물관 관장 삼성경제연구소 사장 (주)NXC 대표이사 서양화가 태아산업(주) 부사장 성신양회 회장 (주)엔씨소프트 대표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 상무 석플란트 치과병원 병원장 오리온 (주)퓨처플레이 대표이사 회원 아주호텔엔리조트 대표이사 어피니티에쿼티 파트너스 대표이사 텐트스 리/(주)민병철교육그룹 파트너변호사 (주)에이치케이디 코리아 부사장 웅인대학교 총장 영은미술관 관장 금호건설 사장	(주)농심기획 상무 TV CHOSUN 전무 (주)한국체인모터 대표이사 (주)동성케미컬 대표 회원 대한광통신 사장 (주)경동인베스트 부회장 아름지기 이사장 법무법인 세종 대표 대산문화재단 이사장 오디컴퍼니주식회사 대표이사 (주)진로 대표이사 사장 (주)비상교육 대표이사 골드만삭스 상무 동일산업(주) 대표이사 사장
吳治勳 柳東鉉 俞承熹 柳英芝 尹 寬 尹普鉉 尹勝鉉 尹日榮 尹楨善 李甲宰 李圭鎬 李起雄 李萬圭 李美淑 李善眞 李秀卿 李承勇 李英純 李鈴子 李容濬 李宇成 李宇一 李宇鉉 李雲卿 李胤基 李仁洙 李宰旭 李濬宇 李芝衡 李哲雨 李學俊 李海珍 林志鮮 張同鎭 張盛鎭 張升準 洋賢財團 田永采 田潤洙 鄭英秀 鄭瑛海 鄭義宣 鄭在昊 鄭志伊 趙炳舜 曹榮美 曹在顯 趙媯珠 趙希卿 朱信鴻 陣在旭 車佳原 차원희 千碩圭 崔誠桓 崔世勳 崔善默 崔元準 崔仁善 崔再源	대한제강(주) 대표이사 사장 (주)인성 부사장 코리아나 화장박물관 관장 유금와당박물관 기획실장 BRV Capital Management 호림박물관 이사 (주)뉴라이프전자 대표이사 영안주식회사 대표이사 (주)성보화학 대표이사 삼일회계법인 전무 (주)코오롱/코오롱글로벌 CSO/자동차부부장 열화당 대표 에머슨퍼시픽 대표이사 삼표산업 목금드갤러리 관장 (주)프라코 재정본부장 전무 (주)에이티넵파트너스 사장 한국미술협회 회원	(주)경농 경영총괄 사장 SCC에너지(주) 부사장 주식회사 유니드 전무 OCI 사장 남양유업 전문위원 스위스그랜드호텔 사장 수원대학교 이사장 전남일보 사장/발행인 홍아해운 부사장 수원지방법원 관사 롯데쇼핑 총괄사장 크리스티코리아 대표 NAVER GIO 보해양조(주) 대표이사 (주)파워맥스 사장 글렌우드프라이빗에쿼티 이사 매일경제 사장
		(사)한길봉사회 이사장 중국미술연구소 대표 은산그룹(ES Creators, ES Investor) 대표이사 회원 현대자동차 부회장 대호물산(주) 대표이사 현대무백스 전무 성암고서박물관장 경동소재 대표이사
		한솔케미칼 부회장 (주)가온소사이어티 대표 (주)푸른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이사 하나유비에스 대표 (주)피아크건설 대표이사 차병원그룹 마케팅커뮤니케이션실 상무 천일식품(주) 대표 SK네트웍스 사업총괄(COO) (주)카카오/카카오페이 보험NewCo TF장
		카이로스 인베스트먼트/한영알코비스 파트너/전무 회원 SK(주) 부회장

\* 2021. 03. 30. 기준





국립중앙박물관회  
FRIENDS OF NATIONAL MUSEUM OF KOREA